

가치가 우수함을 보여주었기에 이를 중례 보고하는 바이다.

## 20. 脾臟 假性囊腫 1例

國軍서울地區病院

洪基碩·權榮浩·金麒煥·金正燦·宋啓用

海軍本部基地病院

任廷基

脾臟의 낭종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Taenia echinococcus*에 의한 것이 세계적인 빈도로는 제일 많다하며, 비기생충성으로는 上皮細胞屬을 갖고 있는 真性 낭종으로 囊胞性림프管腫, carvernous hemangioma, 및 類皮囊腫(dermoid cyst) 등 모두 先天의 원인에 기인한 것들이 있고, 상피세포종을 갖지 않은 假性囊腫으로 일컫는 바 이들은 대부분 外傷에 의하여 出血 및 조작파사에 의하여 생긴 것들과 그의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이러한 囊腫들은 임상적으로는 別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고, 단순 X-선 촬영등으로도 거의 진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1960년대에 개발된  $^{99m}\text{Tc}$ -colloid를 이용한 肝 및 脾臟스캔으로 이들을 진단하기는 매우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낭종들은 脾臟스캔상 모두 冷所를 보이는 바, 脾臟의 冷所를 일으키는 다른 疾患들로서 部分, 轉移된 암, 硬塞症, 血腫等과 감별진단을 필요로 한다.

演者들은 1981년 3월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호흡시 左側胸痛을 主所로 來院한 45세의 女子 患者에서 이학적 所見上 肺부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다만 左側上腹部에서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응어리를 촉지한 후, 간 비장스캔을 시행하여 肝의 좌엽에 위치한 冷所로 생각되었던 약 20cm 크기의 脾臟假性囊腫 1例를 경험하였다. 바, 手術後 確診을 하기 전, 本院에서 시행한 각種 X-線診斷法, 超音波造影術 및 電算化斷層撮影所見等과 아울러 報告드리고자 한다.

## 21. 僧帽瓣膜症에서 放射性同位元素 心臟走査를 이용한 부위별 肺血流의 測定

서울醫大 内科

鄭俊基·金秉允·孫仁

趙普衍·李迎雨·高昌舜

서울大學校病院 醫工學科

尹長鉉·閔丙九

僧帽瓣心疾患에서 肺血流의 再分布가 생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임상적으로 肺血流의 부위별 分布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放射性同位元素 心臟走査는 心房室의 크기, 순환시간, 心搏出係數를 측정할 수 있고 또 肺灌流 상태에서 부위별 血流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이에 연자들은 1979년 4월부터 1981년 3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僧帽瓣心疾患患者 98명을 대상으로 放射性同位元素 心血管撮影術를 시행하여 부위별 肺血流를 측정하고 임상소견 및 心導子소견과 비교하여 보았다. 환자는 누운 상태에서  $^{99m}\text{Tc}$ -Human Serum Albumin 15 mCi를 순간 정맥주사하고 GAMMA-11 computer에 수록하여 放射性同位元素의 肺灌流시 肺의 上部와 下部에서 放射能值을 구하였다.

1) 肺의 上部와 下部의 放射能比(upper lung count /lower lung count)는 정상대조군 20명에서는  $0.92 \pm 0.66$ 이었고 僧帽瓣心疾患患者에서는  $1.79 \pm 0.59$ 로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p < 0.01$ ).

2) 僧帽瓣狹窄症이나 閉鎖不全症, 또는 大動脈瓣膜症이 같이 있는 患者群 사이에서 肺의 上下부 放射能比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3) 23명의 患者에서 각종 心導子 소견과 비교하여 보았다. 平均 pulmonary wedge pressure가 상관계 수 0.75로 肺의 上下부 放射能比와 가장 좋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4) 수술후 僧帽瓣心疾患이 교정된 25명에서 肺의 上下부 放射能比를 측정하여 수술전보다 멀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放射性同位元素 心血管撮影術에서 부수적으로 肺의 上下부 放射能比를 측정하여 肺血流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 수치로 患者的 血流力動을 측정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겠다.